

KIA 신종길·롯데 김대우 10년 함께된 '야구 형제'



KIA 신종길



롯데 김대우



‘광주일고발’ 감쪽 풀풍이 KIA와 롯데 타선에 불고 있다. KIA와 롯데와의 경기가 열린 8일 무등경기장, 다른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KIA 유니폼의 신종길과 롯데 유니폼의 김대우.

신종길은 김대우를 ‘내 동생’이라고 부른다. 한 살 아래의 김대우는 대성초-무등중-광주일고에서 함께 야구를 해 온 특별한 동생이자 후배다.

1군 무대에서 제외는 특별하다. 야구 자질에 대해서는 소문이 자자했던 두 사람이지만 그동안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올 시즌은 얘기가 다르다. 신종길이 달라진 방향으로 김주찬이 빠진 자리에서 KIA의 선두 주자를 이끌었고, 김대우도 타고난 타격 센스로 1군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신종길은 빠른 발과 빠른 스피드, 파워로 늘 코칭스태프의 관심을 받던 ‘오랜 유망주’였다. 김대우는 광주일고 시절 150km가 넘는 공을 뿌리던 에이스이자 4번 타자였다. 2003년 롯데의 2차 1번으로 지명을 받았지만 빅리그를 노리며 대학 진학을 했던 김대우는 돌고 돌아 2008년 롯데 선수가 됐다.

광주일고 투수 김대우는 롯데 타자 김대우로 다시 무등경기장에 섰다. 투수로서의 도전이 실패로 끝난 뒤 타자로서의 변신을 결심한 김대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방망이를 잡았고, 많은 노력 끝에 올 시즌 1군 진입에 성공했다. 그리고 롯데의 4번 타자로 고향을 찾았다.

신종길은 “초·중·고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후배다. 둘 다 우투좌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 야구를 즐겼던 후배다. 공을 던지는 것도 그렇지만 타격에서도 그렇고 뛰어난 후배였다”고 평가했다.

김대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종길이 형의

대성초·무등중·광주일고
1년 선후배 사이
신종길 KIA 선두 이끌고
김대우는 롯데 4번타자
“오늘 맞대결 기대하세요”

진짜 모습이다. 발이 빠르고 수비도 좋았던 선배다. 손목 힘도 상당하다. 그동안은 기복도 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했는데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뒤늦게 유망주 타이틀을 떼고 조금씩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변화에는 ‘인내’가 있다.

신종길은 “올 시즌 가장 달라진 것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다. 변화구를 잡아내는 등 쉽게 방망이가 나가지 않으면서 조금 더 편안한 입장에서 승부를 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것이 없다.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대우도 “아직은 어려운 게 더 많다. 변화구 승부와 수비 등이 어렵지만 매 타석 타석 배워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집중해서 승부를 하고 있다. 지금은 목표라고 할 것이 없다. 매 경기, 매 타석 최선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수를 할 때도 힘으로 승부를 하기도 했고 힘이 좋다. 늘 초심의 자세로 경기장에 서겠다”고 말했다.

감쪽 활약으로 광주일고의 또 다른 얼굴이 된 두 타자들의 진검 승부는 3연전의 마지막 날인 9일에야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신종길은 여객 통증으로 7·8일 스타팅 멤버에서 제외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영웅을 맞이하라”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애크랜트 브레이브스와의 홈경기에서 9회 2사후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극적인 굿바이 홈런을 쏘아 올린 후 홈플레이트에서 동료들의 열띤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美쳤다”

추신수 영화같은 끝내기 홈런 ... 감독·동료 선수·미국 언론 극찬

신시내티, 애크랜트에서 5-4 승리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고 더스티 베이커 감독에게 1600번째 승리를 바쳤다.

추신수는 8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애크랜트 브레이브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4-4로 맞선 9회 2사 후 애크랜트의 마무리 크레이그 킴브렐에게서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굿바이 홈런을 쏘아올렸다.

그는 0-3으로 끌려가던 3회 2사 후 애크랜트 타 우완 선발 크리스 매들런의 직구를 받아쳐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리는 등 시즌 6.7호 홈런을 잇달아 터뜨리며 대폭발했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홈런 2방을 때리기는 올 시즌 처음이다.

5일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1회 선두타자 조구 홈런을 때린 이래 사흘 만에 홈런 2개를 추가한 추신수는 개인 통산 90번째 홈런을 달성하고 곁경사를 누렸다.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15개로 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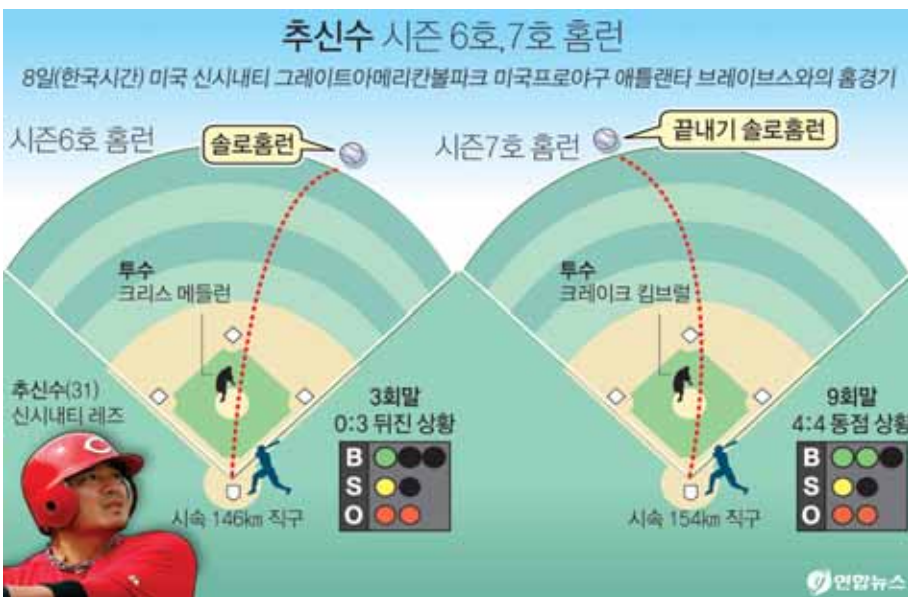
1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좌심한 듯 장타를 노렸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들어선 추신수는 볼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에서 매들런의 몸쪽 직구(시속 146km)를 퍼올려 우측 스탠드에 꽂히는 솔로포를 작렬시켰다.

그러나 5회 1사 1,2루에서는 매들런의 커브에 헛스윙 삼진, 8회에는 상대 유격수 안드레워스에게 홈런을 때렸다.

3-4로 패색이 짙던 9회 2사에서 신시내티에 기적이 찾아왔다.

대타 데빈 메소라코가 킴브렐의 광속구(시속 154km)를 퍼올려 가운데 펜스를 살짝 넘어가는 짜릿한 동점 솔로 홈런을 때렸다.

베이커 감독 “내 통산 1600승 중 최고 승리” 메소라코 “추가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 온다” 언론 “추신수가 9회 말에 모든 것을 바꿨다”



드렐튼 시먼스의 호수비에 막혀 내야 안타를 도둑맞았다.

3-4로 패색이 짙던 9회 2사에서 신시내티에 기적이 찾아왔다.

대타 데빈 메소라코가 킴브렐의 광속구(시속 154km)를 퍼올려 가운데 펜스를 살짝 넘어가는 짜릿한 동점 솔로 홈런을 때렸다.

개인 통산 100번째 세이브를 날린 킴브렐이 망연자실해하던 순간이었다.

이어 추신수가 끝내기 기회를 잡았다.

조구부터 풀스윙으로 킴브렐의 간담을 서늘케 한 추신수는 볼 카운트 2B-1S에서 시속 154km짜리 직구를 견어올려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큼지막한 포물선을 그리고 경

기를 끝냈다.

5경기 연속 안타를 때린 추신수는 5타수 2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331에서 0.333으로 약간 올랐다. 출루율은 0.467에서 0.465로 약간 하락했다.

이날 승리로 베이커 신시내티 감독은 통산 1600승을 기록했다. 경기 후 베이커 감독은 ESPN과 인터뷰에서 “내가 1600승을 거둔 경기다. 극적으로 이긴 만큼 지금까지 치른 경기 중 잊지 못할 경기가 될 것이다. 아마 1600번의 승리 중 최고의 승리가 아닐까 싶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짜릿한 끝내기 홈런으로 역전승을 거둔 추신수와 동료들은 경기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그 여운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추신수는 기자회견에서 “메이저리그의 최고 마무리로 손꼽히는 크레이그 킴브렐을 상대로 해냈다는 점에서 특히 좋았다”며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승리”라고 소감을 전했다.

9회말 동점포를 날린 메소라코는 추신수를 향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메소라코는 “미쳤다(crazy)”는 표현까지 동원해 가며 추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 지 설명했다. 그리고는 “추신수는 절대 타석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며 “그가 서 있으면 우리는 뭔가 해낼 기회가 오리라는 것을 안다”고 찬사를 보냈다.

미국 언론도 “신시내티 레즈의 승리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9회 투아웃 이후 메소라코와 추신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며 놀라움을 전했다. /연합뉴스

패전투수 된 서재웅 “이게 다 석민이 때문”

① 덕아웃 말말말

▲석민이가 안 던지려고 해서 계획이 틀어져=7일 롯데전에서 6.2이닝 3실점(2자책)으로 패전투수가 된 서재웅. 6·7회를 송은범에게 맡기고 8회 윤석민, 9회를 앤서니로 막는 필승계획을 세웠는데 윤석민이 대기조에서 빠졌다고 농담을 하며.

▲은범야 (KIA에서) 너 못 잡겠다=서재웅이 송은범을 보고, 해외 진출 얘기를 하던 윤석민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서 KIA 잔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윤석민과 송은범은 올 시즌이 끝나고 FA(자유 계약) 자격을 얻는다.

▲곧 한국 떠난다고 선배한테 인사도 안하는 거야=롯데 강민호가 인터뷰를 끝내고 덕아웃으로 들어가던 윤석민을 부른 뒤.

▲몸은 타이페이예요=WBC대표팀으로 대만을 다녀왔던 롯데 강민호, 서재웅을 보고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마운드에서 함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포수 차일목이 투수 신승현을 보고, 마운드에서 교체된 투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승현이 서서히 걸어 오더라며.

▲우와~우와~우와~였지=차일목, 4일 윤석민이 등판하던 날 목동경기장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투수 교체를 하기 위해 올라온 조규제 코치에게 누가 올라오느냐고 물었는데 불펜이 있는 외야에서부터 홈까지 사람들의 함성이 물결처럼 일어서 윤석민인 줄 알았다며.

▲극과 극이었잖아요=나지만, 윤석민은 팬들의 환호 속에 등판했는데 자기는 응원팀 팬에게 야유를 받았다고 웃으며.

▲박경태리스트래=훈련 전 선수들과 얘기를 하고 있던 나지만, 박경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인터뷰에서 팬들이 박경태리스트라라고 부르더라면서.

▲우리팀 이기게 가라고 히세요=나지만의 얘기를 들던 박경태,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으면 팬들의 반응이 좋지 못하다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도지사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제3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오는 11~12일 이틀간 여수 엑스포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여수의 섬과 바다를 홍보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엘리트와 동호인

1500여명이 참가해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10km로 구성된 올림픽 코스로 치러진다.

대회는 지난해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박람회장을 시작으로 여수

11·12일 여수 엑스포박람회장 동호인 등 1500여명 참가

의 해양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북선 대교를 지나 돌산 우두리 일원에서 열린다.

사이클과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는 12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여수 엑스포

역에서 거북선 대교, 돌산 상하동 입구까지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여수의 수려한 해양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레저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